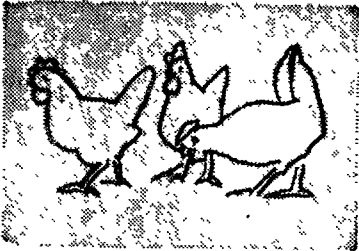


일 본 의 양 계 현 황

부로일러편

1. 생 산
2. 유 통

—미 곡물협회 한국지부 제공—



근래의 소비형태

<소비자의 종류>

전에는 단체 소비가 중요한 소비자였지만 단 3년안에 일반 가정 소비자가 중요한 소비자로 나타났다. 동경과같은 대도시에서는 일반 가정 소비가 75~8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인 평균치는 최소 60%로 추산된다.

<부분육을 더 좋아한다>

근래의 소비자들은 부위별 부분육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통합자의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 이런 경향이 더욱 짙어졌다. 근래에 소비의 24%는 부분육이고 2분된 것의 소비는 정부가 후원한 조사에 의하면 5%로 추산하고 있다. “사사미”(뼈를 뽑아낸 가슴육)는 아직도 18%나 소비되고 있다. 기타의 뼈를 뽑은 고기의 소비는 다진 고기의 소비량에 포함되어, 일반 소비량의 25.8%를 차지하고 있다. 간과 근위의 소비는 9.1%이고 다진고기 같은 기타부분의 소비가 15%이다. 전체적으로 뼈있는 고기의 소비량이 가정 소비의 30% 이상 나타나고 있다.

규격화된 부분육과 2분육의 소비는 단체 주문도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뼈있는 채의 소비량

이 반이상되며 기호성의 변화는 60년대 중반기에 급격히 일어났다.

<소매상에 대한 관심>

식품가격에 대한 인식이 집중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심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닭집에서 전문화된 육계상점으로 옮겨갔다. 한편 이런 닭집들은 통합자들이 취급하지 않는 도태산란계를 주로 판매하게 되었다. 정육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부로일러와 맛을 비교해 보고나서 소비자들의 구매경향은 점차 이곳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도태산란계는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뼈를 빼내야 더 소비가 잘되지만 부로일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소비자들은 부로일러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부로일러를 판매하지 않는 상점에서 멀어져갔다.

<조리방법>

전에 비해 근래의 요리법은 뼈를 빼지 않고 하는게 특징이다. 최근의 조사에 의 하면 가족이 좋아하는 요리법중 가장 높은 2가지 요리는 뼈 있는 채로 조리한 것이었다.

뼈의 유무	요리법	소비비율
유	골 카 라 즈	13.8%
유	골 미 주 다 끼	12.2
유골 혹은 무골	스 프	10.0
유골 혹은 무골	바 베 큐	8.3
무	골 야시 이 투니 루	8.1
무	골 야사 이 이 다 메	5.1
무	골 찌 완 무 시	4.9
	기 타	27.8

자료 : 농림성

<부로 일러-신용어>

몇년전만해도 가정부들은 닭고기를 '히나' 혹은 '오야도리'라고 불렀다. 그러나 지금은 이 용어대신 부로일러라는 말을 사용한다. 부로일러라는 말은 부드러운 고기, 부분육을 연상시킨다. 가정주부에 대한 지식의 보급은 음식점, 요리학원, 주부잡지나 텔레비등을 통해왔다.

표 9 : 일본 전국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

(1966~1968)

년도	년간소비량		6월소비량	
	kg	파운드	kg	파운드
1966	2.0	4.4	5.6	0.012
1967	2.4	5.3	6.4	0.014
1968	2.6	5.8	7.2	0.016

자료 : 농림성

표 10 : 일본의 닭고기 소비량 (1966~1968)

단위 : 톤

년도	총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총소비량
1966	240,027	20	7,033	247,030
1966	291,958	19	7,877	299,816
1968	328,254	17	15,457	343,694

자료 : 농림성과 재무성

가격 및 이윤

<가격>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 도매가 및 소매가격은 옛날부터 그래왔듯이 지금도 비교적 안정된 편이다. 가격의 최고와 최저수준은 소매업자가 완화시키며 지금은 좀더 안정된 가격정책을 쓰고있다. 소매상과 도매상에서의 전국적인 가격변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매상들은 도매가격이 한달에 한번 변하는 것을 늦추려는 경향이 있으며 도매가격 변동폭의 약 반선에서 변동시키려고 한다. 1969년 4월 도매가가 ₩5 올랐을때 소매가는 3월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고, 5월의 도매가가 ₩12 떨어졌

가격변동의 차이

1969	도매	소매	1969	도매	소매
2월	+ 1	- 6	7월	-24	- 7
3월	+12	+ 3	8월	-12	+10
4월	+ 5	-	9월	- 4	-10
5월	-12	-	10월	+24	-10
6월	-16	-			

을 때 소매가는 그대로 유지하여 먼저달의 증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고 있다. 6월에는 도매가가 다시 떨어졌으나 소매가는 변함없이 소매상은 여분의 이익을 취했다. 그러나 7월달에 최고 ₩24 떨어졌을 때 비로서 소매가가 ₩7 떨어졌다. 8월의 도매가 ₩21 저하에 대해 소매가는

표11 부로일러 도매가격 (중형) 전국 평균 1966-1969(10월)

단위 : ₩

kg당 도매가격		kg당 도매가격		
1966	244	5월	255	
1967	243	6월	239	
1968	248	7월	215	
1969	1월	249	8월	194
	2월	250	9월	190
	3월	262	10월	214
	4월	267		

자료 : 일본은행

표12 닭고기 소매가격 (양질) 전국 평균, 1966-1969(10월)

단위 : ₩

kg당 소매가격		kg당 소매가격		
1966	724	5월	750	
1967	728	6월	750	
1968	744	7월	743	
1969	1월	753	8월	753
	2월	747	9월	743
	3월	750	10월	733
	4월	750		

자료 : 수상 집무실

오히려 ₩10 올렸지만 9월과 10월에 도매가격이 ₩20 상승에 비해 소매가를 ₩20 하락함으로써 상승하고 있다.

가격 상승율 : 1966년부터 1969년까지 부로 일러가격은 3.3% 상승했다. 이것은 다른 식품가격에 비해 아주 낮은 비율이다. 가격상승율이 느린것은 생산과 유통구조의 효율성 때문이다.

계절성 : 아직도 가격은 계절적인 특징이 있다. 12월~1월이 년중 가장 높다. 통합자들이 떠맡아서 동결 및 저장기구를 확립한다면 가격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윤>

일반적으로 농장가격은 소매가격의 56%를 차지한다. 이윤이 소매상과 도계공장에 큰 비중을 두면서 이와같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생산 지역 도매상의 이윤이 줄어든 반면 생산지역의 도계공장으로
으로 옮겨갔는데 이것은 통합자들의 조정에 의한 것이며 소매업자의 경우도 최고 30~40%의 이윤이 감소된 곳도있다. 이것 역시 닭집의 고이윤에서 정육점 및 슈퍼마켓으로 옮겨진데 기인하며 여기서는 다른 고기와 마찬가지로 20~25%의 이윤을 붙여 소매한다.

재정 및 통제

통합자들은 부로일러업계의 확장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왔으며 생산 및 시장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자본으로 확장되지 않은 곳이없다. 생산 및 유통분야의 여러 단체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용자해 줌으로서 통합자들은 자기제도에 재차 힘을 불어넣어 부로일러 생산은 또 하나의 확장을 가져오게 하곤 했다.

개인적인 자금조달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여러 요인에 의거하여 어음 및 채권을 주게되고 그들 계획을 분류 목록화하여 광범위한 계획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물의 매입 및 판매면에서 지불기한 및 조건은 1966년도에 조사한 데이타와 별차이 없다.

겨우 몇년전만해도 도시지역 도매상들이 잡고 있던 위치를 통합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확고한 위치를 잡고있다.

기타(질병 및 정책)

<질병>

일본의 부로일러 질병면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켜온 것은 뉴켓슬이다. 다른 질병율은 뉴켓슬에 비해 훨씬 낮다. 질병에 대한 통계숫자는 산란제와 같이 발표했으므로 산란제편에 이미 나와 있다.

<정책>

정책은 1965—1966이래 비교적 변함없이 그대로이다. 정부는 업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자문기관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근본적으로 시험 종계장 및 시험장을 통해 실제로 관리의 개선을 협력하는 것을 찾고 있다. 용자계획도 전과 같으며 통계정보기구도 이전과 같다. 도계공장에 대한 위생검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지대한 것이 특징이며 소매제도의 개선에 협력하는 기색이 엿보인다. 그러나 모든 계획은 부로일러 업계에만 특별히 설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농업정책분야에 포함되어있다. 예를들어 냉동판매제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부로일러업계 뿐만아니라 모든 냉동식품의 거래개선의 길을 찾고 있는 것과 같다. □□

발간 한달만에.....

양계경영일지

양계경영일지는 발간 한달만에 무려 40,000부가 매진되었습니다

단일 책종으로서의 축산업계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른 어떤분야의 서적과 비교해 보아도 단연 베스트셀러의 아나입니다.

이것은 양계경영일지가 양계인에게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권에 100원입니다.

한국가금협회 서울·중구양동44-28
22-3751·3752